

##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지리학: 연구 동향과 주요 주제

최병두\* · 신혜란\*\*

**요약** 최근 지리학 분야에서도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문분야에서 그 동안 누적된 연구 성과물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지리학 분야에서 그 동안 발표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문헌들을 한인들의 해외이주와 지역사회 형성에 관한 연구, 최근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과정과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들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지리교육적 고찰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개념과 연구방법론으로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와 다규모적 접근을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 주제로 이주과정에 관한 현황 파악, 이주의 원인 또는 배경에 관한 추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고찰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지구적 변화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나아가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서 공간적 개념화, 다규모적 접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등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주요어** 초국적 이주, 다문화사회, 다문화공간, 다규모적 접근, 국제이주의 지리학

### 1. 서론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지표상의 환경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 간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며, 특히 인구지리학을 중심으로 인구의 지리적 분포와 더불어 인구 이동과 그 배경 그리고 이에 의한 새로운 지역의 형성이나 이들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

\* 대구대, 지리학, bdchoi@daegu.ac.kr(교신저자)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 h.shin@ucl.ac.uk

지역의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그러나 지리학에서 인구 분포와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변화에 관한 전통적 연구는 대체로 현상적 기술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된 지역의 변화도 해당 지역 자체의 인구 구성이나 여타 단순한 변화를 서술하는 정도였다. 물론 1960년대 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실증주의적 지리학은 인구이동에 관한 보다 정교한 수학적 모형이나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했지만,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초국적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에는 원용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반면 최근 국경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구-지방화 과정 및 그 결과로 초래되고 있는 사회공간적 변화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리학에도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즉 지난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이들이 유입, 정착하게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동안 해외 순인구유출국, 단일문화·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으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리학에서도 기존의 서술적 방법론에서 나아가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 연구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로 최근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다문화공간’(최병두 외, 2011)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나 사회공간적 연구 방법론의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식을 지리교육 분야에도 응용·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문 분야들과 비슷하게 지리학 분야에서도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질적인 발전에는 여전히 상당히 미흡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지리학 분야에서도 관련 주제에 관해 그 동안 누적된 연구 성과물들을 검토·평가하고,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전망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성찰적 계기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 지리학 분야(해외 지리학 분야의 다문화사회 연구 동향은 제외함)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을 고찰해 보고, 이에 바탕을 둔 주요 연구 주제에 관한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관한 지리학의 연구 전망과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초국적 이주 및 다문화사회

로의 전환과 관련된 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해외 이주 및 다문화 지역 연구, 국내 이주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과정 연구, 방법론 및 다문화 지리교육 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물의 검토와 주요 주제들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끝으로 관련된 지리학적 연구의 전망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지리학적 연구 동향

### 1) 한인의 해외 이주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인구의 지리적 이동과 이에 따라 형성·변화된 지역의 성격 규명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다. 특히 그 동안 국내 지리학의 연구 동향을 보면,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 보다는 한국인의 해외 이주와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가 우선 되었다. 이는 최소한 지난 1980년대까지는 해외 인구의 순유출이 더 많았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나 지역들로 한국인의 국제이주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과정과 이들의 해외 지역 정착과정 및 이들이 정착 지역에 미친 영향들에 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sup>1</sup>

1960년대 전후 국내 지리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국제이주를 우선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이정면(1959; 1964)을 들 수 있다. 당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인들의 해외 이주 현황을 소개하고 그 분포 특성을 서술하는 정도였다. 그 이후 국제이주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1980년대부터 특정 해외 지역을 사례로 한국인의 거주 분포 특성을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예로 최효남(1982)은 한국이민자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들의 거주 분포를 분석하였고, 김학훈(1985)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이민자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초기이주 → 정착 → 확산 과정을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미국 유학생들과 그 곳에서 자리를 잡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예로 Yu, 1982; Park, 1984), 단순한 통계 분석 단계는 넘어서 상

당히 체계적인 서술을 통해 단계별 분포 모형을 검증하거나 구조적 접근을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990년대 이후 한인들의 해외 이주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한 연구는 보다 많은 지역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예로 심혜숙(1992)은 조선족의 연변 이주와 그 분포 특성을 소개하는 정도이지만, 이은숙(1999)은 북간도지역으로의 이민 관련 소설들을 해석하여 이들의 공간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영민(1996)은 미국 이민자에 관한 연구에서 한인의 한계를 벗어나 베트남 난민 집단과 이들의 종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다룸으로서 국내 지리학계에 ‘다문화’에 관한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윤흥기·임석희(1997)이나 김영성(1998)의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의 한인 사회의 생업활동이나 거주유형을 분석하였지만, 다소 서술적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일부 지속되었다(예로 김영성, 2006; 2008).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인의 해외 이주 및 이와 관련된 지역들에 관한 연구는 보다 일반적, 거시적이게 되면서 연구 주제들도 더욱 다양해 졌다. 예로 이진(2002)과 반병률(2006)은 미국 및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를 1900년대 초반부터 시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문남철(2006; 2007)은 동아시아 및 EU와 같은 대륙적 차원에서 노동의 이동을 다루고 있다. 연구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 이주의 주체들도 다양해져서, 유럽 국가들에서 한국 입양아의 분포(박순호, 2007), 조기 유학을 통해 본 교육이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이영민·유희연, 2008) 등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관련 주제들도 해외 이주자들의 공간 지각이나 정체성 등을 다루거나(이은숙, 2006; 이은숙·김일림, 2008), 한인 이민자들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한인 이민 교회의 성장 과정을 다루기도 했다(이진, 2003). 한인 기혼 기독교 이민 여성들의 공간활동, 사회활동, 가족관계를 제한된 상황에서 발달시킨 생존전략의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Shin, H.-R., 2007; 2008), 로스앤젤레스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과 연관되어 기독교 이민 여성들의 공간이동이 제한/확장되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 연구(Shin, H.-R., 2011)도 있다. 또한 연구 대상 지역들도 확대되어, 일본의 재일한인 거주지역과 지역 사회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조현미, 2006; 2007; 2009), 1920년대 하와이 이주자들의 사회공간적 분리(이영민, 2007)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탈정치화(박경환, 2005b; 2007)에 관한 연구, 미국 시카고의 한국인 자영업 특성에 관한 연구(임석희, 2009a) 등

미국사회 한국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극동지역 한인 이주 및 재귀환 등과 관련된 연구(이채문·박규택, 2003; 이채문, 2008; 이재혁, 2010 등) 등이 있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 및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 등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체로 관련 자료의 제시와 이를 분석한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방식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연장되지만, 최근 연구들은 특정한 관점이나 방법론(예로 탈식민주의, 초국가주의 등) 또는 정책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관련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로 김영성(1998)의 연구는 시드니지역의 한국인 이주 및 거주지 확산과정을 한국인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경영 식품점이나 음식점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집중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주분화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서술하였다. 시드니 지역의 한국인 지역 이주 및 정착과정은 김영성(2006; 2008)의 최근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연구방법에 근거한 한인 이주의 특성과 지역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는 예로 최근 이재혁(2010)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록 특정한 관점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련 자료의 서술 자체로도 특정 지역이 어떻게 다인종·다문화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한국인의 해외 이주과정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귀환 이주에 관한 이채문·박규택(2003)의 연구와 같이 인구 이동에 대한 배출-흡인모형과 미시적·거시적 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복잡한 분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채문(2008)(사회학자이지만 지리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음)은 그 이후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를 ‘초국적(?)주의적[또는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에서 “초국적주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세계화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이주지와 정착지간의 초국적주의적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러시아 혁명과 같은 이주지와 정착지에서의 상황 변화가 한인 이주자들의 초국적주의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한국인 이주와 정착에 관한 초국가주의 또는 탈식민주의 담론이 오히려 한국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예로 박경환(2005b: 473)은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서의 탈정치화된 민족성의 재정착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탈식민주의적 정치에서 “혼성성은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고 권력이

내재화된 역사와 문화를 비판적 차원에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혼성적인 주체의 위치성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잉태하는 데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로스앤젤레스 도시정부의 재개발 계획과 지역 한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초국적 행위자들이 이 지역의 기업과 부동산 시장을 공격하는 “다중스케일적 지리적 변동은 한인타운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빈곤하고 위험한 내부도시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박경환·이영민, 2007: 196; 또한 박경환, 2005b)

다인종·다문화화와 관련된 해외 지역사회 연구는 또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책을 배경으로 고찰되기도 한다. 조현미(2004)는 일본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입주하는 지자체들에서 추구하는 국제화 전략을 배경으로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고찰될 수도 있지만(조현미, 2007), 보다 포괄적으로 외국인 이주자 일반의 지역사회 정착 및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조현미, 2009a; 2009b)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최병두는 일련의 작업(2009c; 2010b; 2010c; 2011a; 2011b; 2011c)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와 이에 관한 정책, 특히 최근 일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사회 거버넌스, 지역사회 지원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 및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최병두, 2011d).

## 2)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

지리학에서 한인의 해외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학문 분야들과 비슷하게 주로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질적으로도 나름대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과 정착과정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이들의 개별 유입과 그 정착 과정에서 초

래되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이들의 유입과 정착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이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일반화됨(특히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 주제는 특정한 관점(예로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정착에 관한 전과정에 관한 연구나 또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과정에 관한 유형별 통계자료 분석과 이들의 정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 외 지역사회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과 정착과 관련 지역사회의 지원 정책이나 지역 주민들의 지원/자조적 활동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경인지역을 사례로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을 고찰한 정연주(2001)의 석사학위 논문은 정수열(1996)의 연구와 더불어 지리학 분야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최근 전환과 관련된 가장 앞선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인천-부천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초기에 섬유, 의복제품제조업체와 금속제품제조업체가 집중한 공간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보의 확대로 교통이 불편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 외곽 제조업밀집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은 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하면, 이들은 지역사회의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을 배경으로 취업을 한 후, 지방노동시장의 특성에 재반응하면서 취업의 공간 분포 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일정 지역의 특성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취업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나 정체성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예로 박배균(2004)의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을 사례로, 세계화과정에서 이들이 초국가적으로 이주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지만, 이들은 본국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잊어버림’의 정치로 인해 배제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희순·정희선(2011)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안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과정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박신규(2008)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

른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과정은 해당 지역 또는 도시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인종별 집단거주지의 형성과 이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화이다. 예로 최재현·강민조(2003)의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지의 특성을 고찰하여, 국적별 또는 민족별로 거주지가 집단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거주지가 집단화된 지역에서는 에스닉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점차 그 주변으로 확산되어 있으며(조현미, 2006), 이 과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업지역이 성장하기도 한다(장영진, 2006). 이러한 미시적 지역연구와는 달리 최병두(2009b)는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의 노동시장, 지역 생산성, 지역의 산업재구조화 등 보다 포괄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증대와 이들에 의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리학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프로젝트별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구의 한 사례로 ‘저개발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정주패턴과 사회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최재현, 2007; 이희연·김원진, 2007; 이용균, 2007; 정현주, 2007). 이들의 공동연구에서, 이희연·김원진(2007)은 통계자료의 포괄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성장추세와 국적별 정주 패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주제를 보다 구체화 시켜서, 최재현(2007)은 국제결혼이주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과정 또는 초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국제결혼을 야기하는 행위자로서 이해하고 그 공간적 메커니즘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용균(2007) 역시 초국가주의, 특히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초국적 민족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현주는 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과 심상도 분석을 통해 이들이 ‘공간의 틈’에 갇혀 있다고 주장한다.

지리학분야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 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간의 형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은 최병두(2009a)와 박배균(200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의 공간성, 즉 다문화공간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공간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 4가지 유형, 즉 결혼이주자, 단순 이주노

동자, 전문직이주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제이주 및 공간적 분포의 통계자료 분석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초국적 이주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이주자들의 의식을 고찰하고자 했다. 결과물로서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분포 현황 분석(임석희, 2009b), 설문조사 분석(임석희, 2009b), 단순 이주노동자의 이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최병두, 2009b)과 설문조사 분석(박배균, 2010), 전문직 이주자의 이주 및 분포 현황 분석(임석희 · 송주연, 2010), 설문조사 분석(2009b),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및 분포 현황 분석(안영진, 2009; 안영진 · 최병두, 2008)과 설문조사 분석(안영진, 2010) 등이 제시되었고, 그 외 4가지 유형의 이주자들의 초국적(거시적 및 미시적) 이주 배경, 이주 과정, 지역사회의 각 영역별 정착과정에 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물들도 제시되었다(최병두, 2009d; 최병두 · 이경자, 2010; 최병두 · 송주연, 2009 외).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은 지리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를 다룬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최병두 외, 2011).

지리학 분야에서 수행된 두가지 프로젝트 연구의 성과물을 평가해 보면, 최재현(2007) 등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을 대체로 초국가주의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 예로 초국가주의, 페미니스트 다문화주의 등을 도입하여 지리학적으로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를 둔 다른 분야의 연구들과 큰 차별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최병두(2009) 등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함의된 공간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으로 결혼이주자와 단순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이주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제시된 연구 성과물들은 대체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국적별 지역별 이주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정도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정책이나 다문화지역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예로 조현미(2008)의 연구는 고령군을 사례로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는(즉 비율이 높은) 결혼이주자들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정책들을 고찰하

고 앞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주 거리를 이주자들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류주현(2009)의 연구, 광주시를 사례로 초국적 다문화주의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 기반에 관한 박경환(2009)의 연구 등이 있으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사회 정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원활히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관한 연구로 오경석·정건화(2006)의 연구를 들 수 있지만, 이 연구자들은 지리학자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다문화공간의 이론화와 다문화 지리교육

외국인 이주자들의 초국적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과정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지구-지방화(또는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뿐만 아니라 지구적 규모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의 지역불균등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간 사회경제적 차이의 증대,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봉착한 단순 노동력의 부족과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 등에 관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보다 거시적으로 차원에서 동아시아 자본 및 노동 이동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문남철, 2006), 유럽연합(EU)의 확대와 노동의 이동에 관한 연구(문남철, 2007)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거시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거시적, 구조적, 지구적 배경에 관한 추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위의 연구는 특정한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대체로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보다 이론적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및 그 특성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개념이나 이론들을 도입하여 지리학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앞에서 언급한 초국가주의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예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네트워크, 제3의 공간 또는 경계공간, 초국적 정체성 등)을 원용한 국제결혼 및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들(최재현, 2007; 이용균, 2007)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박경환(2007)은 이러한 초국가주의가 주체의 공간적 이동성과 그들의 비공간적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본국과 정주국에서의 사회문화적 관계와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종종 간과해 왔다고 주장하고, 초국가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3가지 위험', 즉 초국적 현상의 다양성과 민족국가와의 관계, 초국적 이주자 집단의 이질성, 초국가주의의 국가적(민족적) 접합과 전유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초국가주의 및 탈식민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고찰과 더불어, 박경환(2005a)은 물리적 이동에서 전제되는 육체의 지리적 이동과 이들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디아스포라 정체성 간 관계를 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 정현주(2007)는 초국적 이주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주의 여성화를 강조하고,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이들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과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현주(2008)는 이러한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에 내포된 젠더선별적 접근과 스케일 이슈를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 이후 정현주(2009: 109)는 기존의 페미니스트의 연구가 "제3세계 여성들을 세계화와 상업화의 희생물로, 제1세계 남성들을 포식자로 일반화하면서 여성들의 주체성과 이들 간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이들을 계속 타자화하고 소외시켰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여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이분법과 소외를 극복하고 여성의 권력화를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초국가주의, 페미니즘 등과 같은 기존의 이론들을 (긍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원용 또는 해석한 지리학적 연구들은 다문화사회의 개념화 또는 이론화에 지리학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이론들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들은 초국적 이주와 그 주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함의된 공간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개념화 또는 이론화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이론들을 지리학적 연구에 단순히 원용 또는 해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탈식민주의나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외국 연구자들의 이론적 고찰을 국내에 번역하여 소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Sharp, 2008; 이영민·박경환, 2011; Harvey, 2009, 최병두 역, 2011e), 이러한 번역서들은 외국 연구자들의 관점이긴 하지만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일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식민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논의를 지리학적으로 비판하고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물론 국내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내재된 공간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한편, 이의 분석을 위한 틀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최병두 외, 2011). 즉 최병두(2009: 635)의 연구는 국제이주와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이 공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면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과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탈지구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원과 투쟁을 통한 ‘인정의 공간’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다. 박배균(2009: 616)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이론적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관한 연구]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공간적 정착과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문화공간을 개념화하고 이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 수준에서 아직 초보적 단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또한 현실 분석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지리교육 분야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세부 연구 영역이다. 지리교육은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국내외 지역사회의 현황과 그 변화를 주요 주제로 다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적, 규범적 가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선희(2008)는 한국지리(7차 개정 시안)를 중심으로 지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의선(2010)은 세계지리에서 다문화 교육적 가치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이진석(2007)은 호주의 다문화 교육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해 연구하고, 박순호(2009)는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내재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변화 과정을 강조하면서 그 현황과 이에 내재된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경환(2008)은 이러한 다문화주의(특히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연구 및 교육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 사회-공간적 분절화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수자-소수자, 우리-그들, 주체-타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의 온정주의적 속성은 다문화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탈근대적 비판의 정치를 희석·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신 “다문화주의를 소수자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소위 ‘비판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 박선희(2009)는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에서 시민성은 국가중심을 탈피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지만, “세계시민성 교육이 지리교육에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바탕을 둔 지역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박경환(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소수자 운동 차원에서의 다문화 지리교육론이 소수자 정체성의 지역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면, 박선희(2009)의 연구는 지역적 정체성이 세계시민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관계 분석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 3.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 방법론과 주제

#### 1) 지리학적 개념과 연구 방법론의 모색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더불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요한 담론 주제가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들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리학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문제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각 학문분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지리학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예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주자의 행위나 이주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배경에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 초국적 이주는 국가들 간 지리적 불균등발전을 배경으로 하며, 특정한 공간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윤리적, 규범적 측면들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어떤 지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지리학적 측면은 대체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로 Bretell and Hollifield(2000)은 국제 이주에 관한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들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인류학, 인구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을 거론하면서, 지리학은 누락시켰다. 이에 대한 논평에서 Kraly(2001)은 이들의 연구가 지리학 분야를 고려하지 않음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분명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공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며, 공간(환경)적 요인들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공간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마치 하나의 점(또는 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추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지리학 적 또는 공간적 측면을 간과하게 된 것은 지리학자들의 책임이기도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지리학적 연구들은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공간적 현상들을 서술하거나 또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일반에서 개발한 개념이나 이론들에 주로 의존하여 자신의 연구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학자들은 다른 학문 분야들의 연구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학제적 접근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다 독자적 관점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를 고찰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론들을 개발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도 보다 폭넓고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에서 왜 공간적 측면이 중요한가를 재인식하고, 이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개념이나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로 지리학 영역 밖에서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누스baum(Nussbaum, 1996: 11-12; Harvey, 2009 재인용)은 지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그녀에 의하면, “지구적 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지리학과 생태학 - 이미 우리의 교과과정에서 많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 -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 관해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전통과 실행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세계시민주의적 교육은 이러한 유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하비(Harvey, 2009; 최병두 역, 2011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주의적 도덕성의 복원에 대한 누스바움의 호소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광범위한 논쟁에서, 인류학, 지리학, 환경과학의 교육이 수행할 비판적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하비는 그의 최근 저서,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에서 칸트에서부터 누스바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리학이나 공간 개념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거나 이를 무시했는가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이론이 얼마나 왜곡되게 되었는가를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리학자들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 제시된 관점이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개념이나 이론들을 정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그 동안 이에 관한 연구는 흔히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이해되어 왔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적용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최근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이주와 지역적 정착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나름대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이주과정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함의된 공간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대체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한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의 정착과정과 제도적 이념적 배경에 관한 이해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주과정 자체나 이를 조건지우는 세계적 배경에 관한 분석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예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밀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즉 장소-특정적으로) 선별적으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공간은 초국적 이주 자체가 공간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지구-지방화 과정의 공간성 및 초국적 이주자의 새로운 정착과정에 함의된 지역성(또는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안된다(최병두 외, 2011: 제1장). 다문화공간은 고정적,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있으며, 중층적 공간들의 ‘규모적’ 접합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들의 국제적 이주와 지역적 정착과정에 함의된 지구적 공간과 지방적 공간의 접합은 공간적 규모의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서 규모(scale)란 특정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관계나 과정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하지만, 세계, 국가, 지역, 도시 등과 같은 규모들은 어떤 객관적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규모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프로젝트들을 개선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특정한 지형으로 이해된다(Swyngedouw, 1997: 140). 다문화공간은 지구적 공간과 지방적 공간의 접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공간에 관한 연구는 규모적, 특히 대규모적 접근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과정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와 세계체제의 변화 과정은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정치체제의 사회공간적 변화는 상품이나 자본, 정보와 기술의 국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 및 이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사람들(예로 결혼 이주자, 유학생,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관광객들)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지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이나 자본과는 달리 인간 주체로서 여러 가지 다른 제약들을 받게 되고 특히 유입국의 정책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일단 유입된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대응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송출국 및 유입국에서의 지역사회 변화, 나아가 해당 국가의 특성과 세계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가족-지역사회-국가-세계체제에 이르는 대규모적 층위들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대규모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다문화공간의 개념은 보다 이론적 철학적 성찰을 함의한다. 예로 다문화공간은 탈영토화 과정으로서 초국적 이주와 재영토화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면서 또한 변증법적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초국적 이주과정과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시켜 분석하거나 또는 결합시켜 고찰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호하게 병렬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는 지역의 정착과정(즉 뿌리내림)을 전제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최근의 국제이주의 동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의 정착과정

은 불안정하여 또 다른 국제이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가 국가적 및 세계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들은 새로운 국제이주를 연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이주를 통한 탈영토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의 뿌리내림을 전제로 한 재영토화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재영토화는 또 다른 탈영토화의 배경이나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의 초국적 이주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흐름의 공간(탈영토화)과 장소의 공간(재영토화)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다문화공간 이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공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리학자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탈영토화/재영토화의 개념뿐만 아니라 지구-지방화에 관한 논의에서 나아가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으로부터 새로운 공간적 인식이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함으로써 이들이 안고 있는 공간적 오해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 내부의 개념과 연구방법론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러한 관점 또는 이론들은 모두 이미 공간적 차원을 함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공간적 용어나 개념들(또는 메타포)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표 1).

예로 다문화주의는 한편으로 새로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한 윤리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다문화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한 동시에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최병

표 1.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여러 이념/개념들

	지구-지방화 (glocalisation)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공간적 개념	세계도시(global city), 지구도시화(glurbanization), 지구-지방성(glocality)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 다문화 도시(multicultural city)	세계시민적 도시(cosmopolitan city); 세계시민적 폴리스(cosmopolis)	초국가적(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 or community)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 국제적 간공간(international in-between space)
규모적 접근 방법	다규모적: 지구-지방화의 양면성과 규모적 역동성	지방지향(1): 이전된 지방문화들 간 분절과 접합	지구지향(1): 지구문화를 드러내는 지방(도시)	지구지향(2): 지방을 연계하는 지구적 네트워크	지방지향(2): 지구-지방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

두, 2009a; 최병두 외, 2011: 제1장).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화이론으로 제시된 탈식민주의는 이미 지리학 내에 상당정도 들어와 있으며 (Sharp, 2008;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특히 상호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의 융해, 혼합, 재구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제 3의 공간'(third space)를 제안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공간 개념은 예로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형성된 '혼성성의 공간'에서 탈정치화된 민족성이 혼종적 집단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재정치화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에 응용되고 있다(박경환, 2005b). 세계시민주의는 사람, 상품,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들의 혼합 장소로서 코스모폴리탄 도시를 창출하며, 이러한 도시는 "지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도시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Yeoh, 200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비(Harvey, 2009; 최병두 역, 2011e)에 의해 철저히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국제이주에서 나아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활동들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초국가주의 역시 이러한 활동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형성된 '초국가적 사회공간'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리학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로 박경환(2007)은 초국가주의 논의의 세 가지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의 관점이나 이론들은 주요한 공간적 함의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학에 보다 쉽게 도입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들이 가지는 공간 개념의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sup>2</sup> 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단층적 접근이 아니라 다규모적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규모적 접근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이론을 절합시켜(articulate) 준다는 점(단일한 이론체계나 방법론이 아니라)에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함의들은 기존의 정치경제체제에 의해 쉽게 동원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이나 관점에 바탕을 둔 규범적 주장들은 지리학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들에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경험적 연구 주제들

다문화공간으로서 초국적 이주와 지역사회의 전환 과정에 관한 지리학적 주제들은

배경(원인) → 이주 → 정착 → 영향(변화)라는 4단계에서 작동하는 공간적 측면들로, 국제이주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 국제이주의 세계공간적 배경에 관한 설명,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지리학적 요인 고찰,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와 국가적 세계적 영향에 관한 분석 등을 포괄한다. 이 과정들은 상호분리된 것이라기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이 과정들에 경험적 분석들을 위한 세부 주제들은 전체 과정을 항상 전제로 설정되고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관한 지리학 분야의 세부 연구 주제들에 관하여 부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초국적 이주과정의 현황 파악

우선 초국적 이주과정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즉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오는가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유입국에서의 현황뿐만 아니라 송출국에서의 상황에 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송출국의 현황 파악과 관련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은 어떤 국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유출되었으며, 예로 송출국에서 국제 이주를 하는 국가들의 비율을 조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 또는 국제노동으로서 유출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송출국의 경제적 발전단계와 고용 및 소득 수준, 사회적 이주에 대한 인식과 제도 등이 어떠하며,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유출국이 과거 한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유입국의 상황 파악과 관련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떤 지역에 분포해 있는가, 이러한 분포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등에 관한 고찰을 우선 필요로 한다. 송출국에서 어떤 특정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연쇄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입국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밀집지역은 외국인들의 추가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유입국 및 송출국의 특성 파악은 단순한 흡인-배출요인의 파악에서 나아가 이 국가들을 규정하는 세계적 경제, 정치체제와 이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불균등발전 및 공간적 분절에 관한 고찰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적 이주과정에 관한 현황 파악에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이동에서 어떠한 매개 및 이주경로를 거치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게 포함한다. 여기에는 이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특성이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기관들(예로 종교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이주자들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 이러한 매개기관이나 이주경로의 차이가 초국적 이주 그 자체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차이가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 (2) 초국적 이주의 구조적 배경에 관한 고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과거의 경우들과는 분명 다른 구조적 배경하에서 전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공간적 유동성/분절화(또는 차별화)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초국적 이주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즉 포드주의축적체제에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세계도시에 입지한 본사와 국제적으로 입지한 분공장체제로 형성된 사회공간적 분업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들의 분공장들은 저임금을 찾아 국제적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유연적 축적체제 하에서 한편으로 첨단기술산업의 발달과 이에 종사하는 전문직 다기능 노동자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양화된 탈숙련 제조업의 유지 및 사회적 서비스업(예로 간호, 간병 등)의 급증과 이에 따른 단순 노동자들의 수요 증대가 초국적 이주를 촉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재편과정은 그러나 세계적 지역불균등발전과 더불어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초국적 이주의 세계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이나 고용 및 소득 기회의 공간적 분절에 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또는 지역)적 공간 분절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삶의 질의 차이와 더불어 인종이나 민족, 젠더와 성성 등의 차이를 유발하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공간적 분화(차별)와 병행한다. 이주과정의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공간분화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며, 이

러한 분화가 초국적 이주를 어떻게 유발하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국가적 또는 자연적 차원에서 공간적 분화가 확산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유동성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 즉 자본주의의 세계화과정은 자본과 기술뿐만 아니라 노동의 국제적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기술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에의 복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공간적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 경계를 전제로 한 국민국가의 제도와 정책들을 와해시키고자 한다. 자유로운 초국적 이주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애물의 제거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에 의해 기술적으로 뒷받침된다. 전세계적 항공노선의 발달과 더불어 실시간대 원거리 의사소통은 국제적 이주과정과 지역사회의 정착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더욱이 국경을 넘는 매체의 역할은 탈가치화, 탈이념화에 바탕을 두고 외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흔히 지구화, 정보화과정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공간적 분절/재통합과 이를 위한 공간적 이동성의 증대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 (3)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분석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의 행동 차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주·정착한 지역에 대한 이주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착과정(그리고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지역사회의 지리환경적 요인들은 이주자의 정착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도 포함됨),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간적 인식과 실제 공간적 활동 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등과 같이 행동적 차원에서의 의문에 관한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주자의 본국 거주지(대도시/농촌지역)의 특성, 이주 이전의 공간적 활동의 정도나 다른 외국 경험이 지역사회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 이동경험이 많은 이주여성과 농촌(폐쇄적 공간)에서만 살아온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태도나 과정은 분명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주자의 정착과정은 이주자의 출신국의 문화, 관습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착

하고자 하는 이주자의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들이 정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직장 고용인, 상사, 동료 또는 배우자, 가족, 주민들의 태도 등 지역사회 의 포용력에 따라서도 정착과정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그림 1). 따라서 예로 이주자가 지역에 대한 정착 정도(또는 만족도)와 지역적 정체성의 형성은 이주, 정착한 지역사회의 특성(예로 대도시,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배제/포섭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이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제도(예로 지자체의 법이나 조례)와 지역주민단체들의 지원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이주자의 정착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과정에 관한 고찰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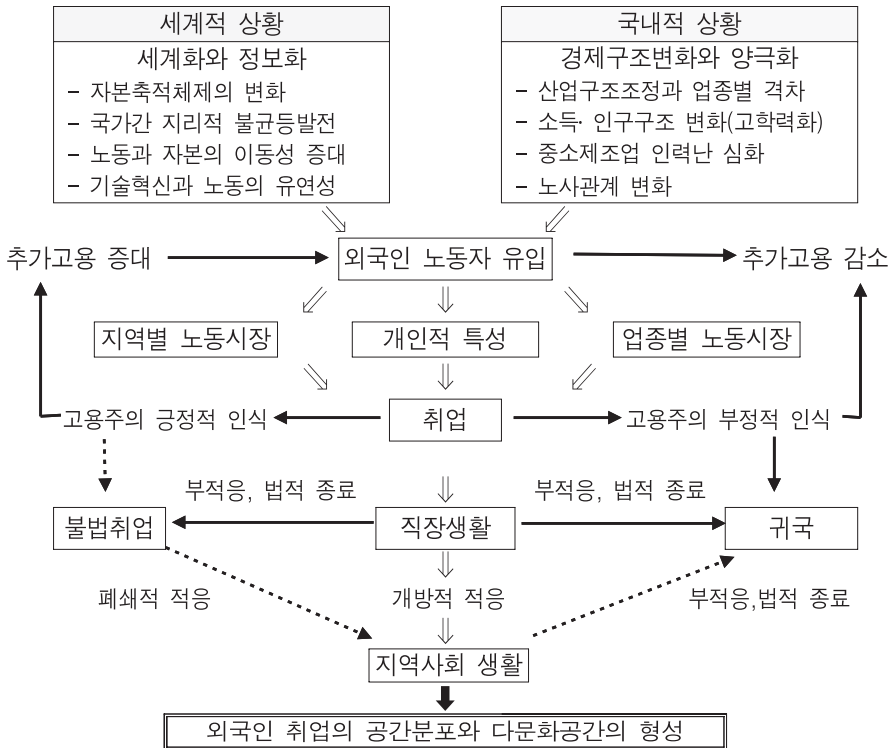


그림 1. 이주 노동자의 유입 배경, 정착과정 및 다문화공간의 형성

성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또는 커뮤니티)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고찰도 요구한다. 이주자가 형성한 사회공간적 네트워크는 다규모적 차원(개인, 지역사회, 국가, 국외 등)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간적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요인과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외국인 전문직종사자가 주거지 분화를 이루거나 또는 단순 이주노동자들이나 국제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이후 본국으로 귀국할 것인가에 따라 이들의 정착과정은 달라질 것이다.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디에 거주하기를 원하는가 또는 자녀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싶은가는 정착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뿌리내림을 통한 생활의 안정감 및 정체성의 고양을 위한 고찰로 나아가게 된다.

#### (4) 지역사회와 세계체제의 변화에 관한 고찰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국내 이주와 정착과정에 주로 관심을 두는 반면, 실제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예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과거 국제이주 연구가 이민법이나 국가별 문화 차이 등 국가차원의 주제에 집중하거나 또는 이주자 개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학계에서 이주자들을 받아들인 도시와 지역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의 정책이나 문화적 차이도 도시/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체화되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된 곳이 바로 이들로 인해 큰 변화를 경험하는 지구화의 구체적 장소(즉 지방화)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Ehrkamp and Leitner, 2006; Cadge et al., 2009; Nelson and Hiemstra, 2008).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사례는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개념, 즉 '내향적 국제화' 및 '다문화공생'이라는 정책의 지역적 추진과정 및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한승미, 2003; 양기호, 2009; 조현미, 2009b). 상품 및 인력, 자본의 해외 유출에 따른 외부로의 국제화 즉 '외향적 국제화'와는 달리, '내향적 국제화'는 최근 국내로 이주한 국제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의 급증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이(異)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과 경험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제도와 관행의 세계화 경향과 관련된다. 내향적 국제화에 관심을 둔 연구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공생'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지만, 때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최병두, 2011d).

초국적 이주와 정착과정이 송출국과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효과로 파악될 수 있다. 초국적 이주는 흔히 경제적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에 (최소한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송출국의 지역사회에서 과잉노동력을 해소하고 사회적 부의 외부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유입국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결혼적령인구의 출산력 증대로 고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는 저소득층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비용의 확대, 이주자의 정착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사회공간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입국의 지역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

나아가 초국적 이주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다시 국가적 및 세계적 경제사회 체제의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 또는 제어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 정책적 측면에서, 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초국적 이주자의 증대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예로 증가한 초국적 이주자들의 투표 행태는 정치지도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됨)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나 정책 변화는 다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초국적 이주의 증대는 자본과 기술의 국제적 이동과 더불어 세계적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지역불균등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불균등발전은 초국적 이주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초국적 이주에 따른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발전의 심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물론 이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 4. 맺음말: 지리학적 연구의 전망과 과제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공간적 이동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초국적 이주와 이에 의한 지역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물론 최근 지구적, 국가적 조건의 변화(즉 지구-지방화과정과 시공간적 압축, 국가 간 불균등발전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변화, 그리고 개별 국가 내 노동력 부족이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인구적 조건들)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들의 정착과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다른 학문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관련 자료들의 수집(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과 분석에 근거한 이주과정 및 공간적 분포 서술 또는 개별적인 지역사회 정착과정이나 그 영향에 관한 미시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론적 또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원용하여 적용 또는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지역사회가 인종적 및 문화적으로 혼종화되는 정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리학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첫째 초국적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대규모적 접근, 둘째 초국적 이주와 지역의 다인종·다문화화와 관련된 공간적 개념화, 셋째 진정한 다문화공간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운동 방안의 모색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3가지 세부 주제들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에 관한 지리학 분야 나아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초국적 이주와 지역의 다인종·다문화화와 관련된 공간적 개념화가 긴요하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분명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내재된 공간적 문제들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주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 예로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은 이미 상당 정도 이론화되어 있으며, 또한 암묵적으로 공간적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이론들에 함의된 공간적 차원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의 초국적 이주와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은 분명 공간적 차원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또는 다

문화주의 정책 등과 같은 개념들은 예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균질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과는 무관한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모든 지역들이 동일하게 다문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문화정책의 우선적 시행 기관은 국가라기보다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한 지자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공간의 개념화는 단지 다문화사회에 함의된 공간적 차원을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현실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초국적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다규모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 이주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있어 왔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이후 상품이나 자본의 이동에 비해 국경을 가로지르는 국민들의 이동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은 물적 상품이나 자본과는 달리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조건들(가족문제, 언어문제 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력(단순 이주노동자나 전문직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가족의 노동력 충원을 전제로 한 결혼 이주자, 전문직 이주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포함)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미시적/거시적 분석 또는 행위적/구조적 차원을 분석적으로 통합한 다차원적 또는 다규모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초국적 이주자의 행위적 차원(예로 이주 행태나 정체성 등에 관한 연구에서처럼)은 상당 정도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원(단순히 경제의 세계화로 추상화될 것이 아니라, 예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있어서 한계를 대신하기 위한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분석, 또 다른 예로 NAFTA나 EU와 같은 국가 간 경제시장의 통합이 정치경제적으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억제하는가에 대한 연구 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구조적이고 따라서 상당히 이론적 고찰을 요한다.

셋째, 진정한 다문화공간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운동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구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구 사회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예로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유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라는 국민국가적 담론을 구축하고 있었던 한국이나 일본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받아들

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발표되고 있으며, 해당 정부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담론과 정책들은 그 나름대로 규범적 가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개발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나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정책들은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해소하고 원만한 사회공간적 통합을 추구하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문화주의는 명시적인 동화주의나 차별주의에 대한 대안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규범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다문화공간의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과 실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주

- 1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은 지리학자의 연구이거나 또는 지리학자는 아니지만 지리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한정하며,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연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하비(Harvey, 2009; 최병두 역, 2011e)에 의하면, 칸트(Kant)에서부터 누스baum(Nussbaum)에 이르기까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주장이나 그 외 관련된 벡(Beck)이나 벤하비브(Benhabib), 헬드(Held) 등이 제시한 주장들은 공간적 차원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 공간' 개념에 빠져서 상대적 공간이나 관련적 공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011년 6월 5일 접수, 2011년 6월 13일 수정, 2011년 6월 19일 채택

## 참고문헌

- 김영성, 1998, 시드니 한국인의 거주유형, 지리학연구, 32(2), 39-58.  
 김영성, 2006, 호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지리학연구, 40(4), 497-512.  
 김영성, 2008, 시드니 한인의 이주와 주거이동, 지리학연구, 42(4), 513-525.

- 김학훈, 1985, Los Angeles 한인들의 거주패턴, *지리학과 지리교육*, 16, 12-80.
- 김희순·정희선,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1), 93-106.
- 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77-90.
- 문남철, 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 -재의 거주공간정책의 필요성, *지리학연구*, 38(4), 497-511.
- 문남철, 2006, 동아시아 자본 및 노동이동의 구조적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15-228.
- 문남철, 2007, EU 확대와 노동 이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182-196.
- 박경환, 2005a, 육체의 지리와 디아스포라: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정신분석 지리학으로의 어떤 초대, *지리교육논집*, 49, 143-158.
- 박경환, 2005b, 혼성성의 도시 공간과 정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의 탈정치화된 민족성의 재정지화, *대한지리학회지*, 40(5), 473-490.
- 박경환, 2007, 초국가주의 뿌리 내리기: 초국가주의 논의의 세 가지 위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77-88.
- 박경환, 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297-310.
- 박경환, 2009, 광주광역시 초국적 다문화주의의 지리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91-108.
- 박경환·이영민, 2007,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다시 생각하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다중스케일적 지리적 변동, *대한지리학회지*, 42(2), 196-217.
- 박배균,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박배균, 2010,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89-110.
- 박선희, 2008, 지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모색: 한국지리(7차개정시안)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2), 163-177.
- 박선희, 2009, 다문화사회에서 세계시민성과 지역정체성의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78-493.
- 박순호, 2007,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695-711.
- 박순호,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64-477.
-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

- 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반병률, 2006,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문화역사지리(발제문), 18(3), 140-148.
-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 심혜숙, 1992, 조선족의 연변 이주와 그 분포 특성에 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4, 321-331.
- 안영진, 2010,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주요 배경 요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44-363.
- 안영진·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
- 양기호, 2009,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2(1), 135-147.
- 오경석·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
- 윤흥기·임석희, 1997,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한국인의 생업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2(4), 491-510.
- 이영민, 1996, 남부 루이지애나의 베트남 이민집단과 불교: 용광로 속의 성분 -혹은 문화적 다양성의 성분-, 대한지리학회지, 31(4), 685-698.
- 이영민, 2007, 1920년대 호놀룰루의 다문화주의와 집단 간 사회-공간적 분리, 대한지리학회지, 42(5), 675-690.
- 이영민·유희연, 2008, 조기유학을 통해 본 교육이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상징자본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11(2), 75-89.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은숙, 1999, 193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 이민의 공간 이미지 -이민소설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4(4), 419-434.
- 이은숙, 2006, 이민공간에 대한 재미한인의 지각, 문화역사지리, 18(3), 1-16.
- 이은숙·김일림, 2008,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사회,문화적 정체성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0(1), 19-33.
- 이재혁, 2010,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주의 특성과 인구발달, 국토지리학회지, 44(2), 181-198.
- 이전, 2002,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 문화역사지리, 14(1), 109-122.
- 이전, 2003, 한인 이민 교회의 성장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5(1), 31-46.
- 이정면, 1959, Population movement of Korea: International movement, 경희대학교 논문집, 2(1), 20-37.
- 이정면, 1964, 한국인구의 국제이동과 그 경향, 경희대학교 논문집, 3, 43-65.
- 이진석, 2007, 호주의 다문화 교육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7(3), 21-32.
- 이채문, 2008,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초국적주의적 관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2), 141-158.
- 이채문·박규택, 200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559-575.

- 이희연·김원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성장과 정주패턴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15-33.
- 임석희, 2009a,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64-387.
- 임석희, 2009b, 미국 시카고 대도시권의 한국인 자영업 특성과 성격 변화, 지리학연구, 43(2), 221-239.
- 임석희, 2009c, 한국의 초국적 결혼이주와 신민족성의 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93-408.
- 임석희·송주연, 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75-294.
- 장영진, 2006,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 장의선, 2010, 세계지리의 다문화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2), 185-201.
- 정수열,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 행태,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27-42.
- 정현주, 2007, 공간의 틈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109-121.
-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
- 조현미, 2004, 일본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별 시책비교 -가나가와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539-553.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조현미, 2007, 재일한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 -오사카 이쿠노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601-615.
- 조현미, 2008, 고령군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4), 347-366.
- 조현미, 2009a,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분리와 공동체의식의 변화: 대판부(大阪府) 팔미시(八尾市)의 동화지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6), 803-819.
- 조현미, 2009b,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49-463.

- 최병두, 1996, 한국의 사회·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68-294.
- 최병두, 2009a,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 최병두, 2009b,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69-392.
- 최병두, 2009c,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1) 추진 과정과 지역적 현황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3(4), 699-721.
- 최병두, 2009d,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 최병두, 2010a,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리적 지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39-63.
- 최병두, 2010b,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2) 지역사회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2), 143-165.
- 최병두, 2010c,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3)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회단체들의 활동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3), 301-325.
- 최병두, 2011a,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17-39.
- 최병두, 2011b,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다규모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공간과 사회, 35, 219-271.
- 최병두, 2011c, 다문화사회와 지구-지방적 시민성: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2), 181-203.
- 최병두, 2011d(근간), 다문화공생: 일본의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푸른길.
- 최병두·송주연, 2010, 외국인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295-318.
- 최병두·이경자, 2009,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64-88.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최재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1-14.
- 최재현·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17-30.
- 최효남, 1982,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한국인 거주 분포 형태, *지리학연구*, 10, 531-543.
- 한승미, 2003,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 실험, *한국문화인류학*, 36(1): 119-147.
- Bretell, C.B, and Hollifield, J.F(eds), 2000,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Routledge, New York.
- Cadge, W., Curran, S., Hejtmanek, J., Jaworsky, B.N. and Levitt, P., 2009, *The City as Context: Culture and Scale in New Immigrant Destinationa*. Willy Brandt Series of Working Paper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1/09.

- Ehrkamp, P., Leitner, H., 2006, Rethinking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ew Spaces of Migrant Transnationalism and Belong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591-1597.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niversity Press; 최병두 역, 2011e(근간),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 삼천리.
- Kraly, E.P., 2001, Review of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Edited by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8.
- Nelson, L., Hiemstra, N., 2008, Latino Immigrants and the Renegotiation of Place and Belonging in Small Town America, *Social & Cultural Geography*, 9(3), 319-342.
- Nussbaum, M., Cohen, I., 1996,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Beacon Press, Boston.
- Park, S.-Y., 1984, Settlement patterns: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mobility, in W.M. Hurh and K.C. Kim (eds),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Rutherford,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Sharp, J.P., 2008,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age, London,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이영민 · 박경환 역, 2011, 여이연.
- Shin, H.-R.,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on line), 1-19.
- Shin, H.-R., 2008, A new insight into urban poverty: the culture of capability poverty amongst Kore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5(4), 871-896.
- Shin, H.-R., 2007, Korean immigrant women to Los Angeles: religious space, transformative space? in Morin, K. and Jeanne, G.(eds.), *Women, Religion and Place*, Syracuse University Press, Syracuse, NY.
- Swyngedo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Cox, k.(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New York, Guilford, 137-166.
- Yeoh, B., 2004, Cosmopolitanism and its exclusions in Singapore, *Urban Studies*, 41, 2431-2445.
- Yu, E.-Y., 1982, Koreans in Los Angeles: Size,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in E.Y.Yu., E.H.Phillips and E.S. Yans(eds), *Koreans in Los Angeles: Prospects and Promises*, Koryo Research Institute, Los Angeles, 23-47.

## Geography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Trends and Major Subjects

Byung-Doo Choi & HaeRan Shin\*

**Abstract** Researches 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geography as well as other fields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nd hence it becomes important to examine research results accumulated so far. This paper is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in geography which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on international emigration of Korean people and their settlements on foreign places, on recent inflow of foreign immigrants and their settlement process, and on methodologies and geographical education on them. Secondly in order to develop further geographic research 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this paper is to suggest 'multicultural space' and 'multi-scalar approach' as a new concept and methodology for it, and to point out some major empirical research subjects such as concrete realities on transnational migration, its structural backgrounds or causes, settlement processes on certain regions, and changing processes of society on the local,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level. Finally this paper reiterates importance of spatial conceptualization, of multiscalar approach, and of development and implements of practical programmes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Trans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space, multiscalar approach, geography of international migration

---

\* Daegu University, Geography, bdchoi@daegu.ac.kr(corresponding author)

\*\* University College London, urban planning, h.shin@ucl.ac.uk